

[로스쿨 합격기]

## 知彼知己, 百戰不殆

- 1981년 10월 생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졸업 (2000년)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9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



이 승 운

### I. 들어가며

편집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많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편집장님이 보내주신 합격수기 샘플들을 보고는 시름에 빠졌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만 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능력있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두고 과연 내가 합격수기를 쓸 자격이 있는가 였고, 두 번째 이유는 상위권 로스쿨 - 소위 SKY - 에 입학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불리 합격수기를 썼다가 대다수의 독자들로부터 誹笑를 금치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그러나 로스쿨 수험생 중에서는 물론 아주 화려한 스펙과 특기를 자랑하며 어딜 내놔도 절대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이 있는 반면, 나처럼 어딜 내놔도 빠지는 스펙과 특기를 갖추고 있는 수험생도 제법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을 위한 꿈

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이렇게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글을 넘겨주시거나 혹은 읽으시더라도 비웃음만은 금해 주시길 바라고,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저 가벼이 읽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 읽으신 후에 나의 이러한 長考 끝의 결정이 惡手인지, 好着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 II. LEET 시험을 치기까지

### 1. 나에 대한 탐색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일 것이고, 또한 가장 많은 로스쿨 수험생이 받는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려 하나?”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어딜 내놔도 빠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학부를 다니는 동안 고시공부를 한답시고 영어공부는 물론이며 학점관리도 제대로 못하였고, 취업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스펙 쌓는 것도 소홀히 했다. 나이라는 숫자 또한 자꾸 높아져만 간다. 그러다가 로스쿨진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본 날, 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또한 그것이었다.

그러나 처음엔 좀처럼 해답을 찾기 힘들 것 같았던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 둘째는 개인적인 이유였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우선 합격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고시에 비하여 로스쿨은 앞날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다. 또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법 이외의 많은 것도 두루두루 배우고 싶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나 스스로의 성격이 너무나도 자유분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롭고 즐겁게 공부하고 싶었다.(그렇다고 로스쿨 생활이 여유롭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후에는 나 스스로에 맞는 전략을 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성적인 면과 정량적인 면을 나누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만 했다.

### 2. 학점 관리

학점이라는 것은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바꿀 수 없다. 만약 자신이 이미 학부를 졸업했다면 이미 취득한 학점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학점을 가진 사람들보

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것을 속히 찾아야 할 것이고, 아직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학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 로스쿨에 입학하기로 맘먹었을 때가 4학년이었으므로 다행히 소수점이하 자리의 GPA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까지 이수가능학점을 가득 채워 들을 수 밖에 없었고, LEET 공부도 같이 하기 위해 기초논리학 등의 과목도 수강했다. 결국 마지막 학기는 생애 처음으로 4.50이라는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면접때 비록 전반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학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학기는 4.50을 받았다는 것을 어필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것 같다.

### 3. 영어점수의 준비

목차를 왜 '영어점수의 준비'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영어능력의 준비가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영어능력이 아닌 일정 이상의 영어점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점수와 영어능력은 일정부분 비례관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어느 것을 더 중점으로 하는가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운 좋게도, 영어점수를 올리는 것은 영어능력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시간도 덜 걸리는 것 같다.

영어점수는 LEET 시험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미리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좋다...라고 누구나 말을 하고 있고, 나 역시도 같은 생각이다. 나같은 경우 토익 점수의 마지노선을 5월로 정해놓고 스터디를 활용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언제나 주옥같은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기에 스터디 자료는 항상 풍부했다. 묵묵히 문제만 푸는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토익을 가르쳐주겠다고 학교의 후배들을 모아 스터디를 결성한 후, 토익 문제를 함께 풀며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교 후배들을 가르쳐주다 보니 나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실력이 쑥쑥 느는 후배들 앞에서 긴장감도 들게 되어 토익 점수가 정체가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매너리즘 같은 것에 빠지는 일도 없었다. 물론 시험치기 일주일 전부터는 실전훈련을 하며 철저히 토익 위주로만 생활했다.

### 4. 자기소개서 준비

언제나 최상의 결과에 대비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나

름대로의 생활방식이다. 나는 적어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시점부터 지원 학교를 확실히 결정할 때까지는 했다. 아시다시피, 리트라는 것은 당일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리트 결과가 나올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리트점수는 상쇄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기소개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상 자그마한 수첩과 필기구를 휴대하고 다녔다. 그리고 밥을 먹을때나 어딘가로 이동할 때 등등 자투리시간이 생기면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에피소드라면지, 나를 가장 임팩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너는 무엇이나?'라는 아주 피상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에도 주저않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수첩에 메모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은 나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었다. 또한 아주 평범하기만 했을 것 같았던 그동안의 삶이 개성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도 해 주었다.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나중에 진솔하고 내용이 풍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5. 논술과 면접의 준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이 사람은 과연 리트준비는 언제했나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 대부분은 리트시험이 끝난 이후에나 할 법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이 글에서는 처음부터 쓰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문제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나 논술, 면접은 눈에 보이는 점수가 없기에 당장은 힘이 들진 몰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놓는다면 분명 눈에 보이는 리트점수보다 더 파괴력이 클수도 있다고 장담하는 바이다.

리트 논술은 일반적인 논술과는 달리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그에 대한 질문이 달려 나온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답안이 있다는 말이다. 나의 경우 제시문과 질문이 달려있는 논술 문제는 익숙지 않아 처음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꾸준히 논술 답안을 쓰면서 나만의 방법을 정립해 나가고, 어느 정도의 제시문 분석능력과 글쓰기 요령을 터득하니 논술에 자신감이 붙었다. 자료는 나의 논술에서 받은 대학별 논술기출문제를 활용했다. 보너스로 논술을 공부하면서 읽은 각종 자료들과 제시문 분석능력은 언어이해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자료들은 면접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나의 답변을 더욱 깊이있게 해 주었다.

이 외에도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각각 정기구독하여 받아보았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은 할애하여 스스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별 면접 기출문제의 경향이 대부분은 찬반이 명확히 갈릴 수 있는 시사적인 문제에서 나왔다고 나름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이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왔다면 그것도 찾아서 보았다. 공개되는 글 중에서 헌법재판소 판례만큼 찬반양론에 대한 주장이 각각 명확히 정리되어 있고, 그에 따른 논거가 논리적으로 쓰여진 것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교수님들도 당연히 헌법재판소 판례는 유심히 볼 것이고, 자연스레 면접 문제에 녹아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6. 언어이해의 준비

언어이해는 아무리 해도 좀처럼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답답한 나머지 배경지식을 늘이기 위해 이책 저책을 찾아 읽기도 한다고 들었다. 물론 배경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문을 읽는 것이 편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한 지문당 3문제가 달려나오는 언어이해에서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은 지문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시문 분석 능력을 기르시길 추천한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시문을 분석했던 것이 언어이해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제시문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보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선택지들을 만들다보면 알게 모르게 출제자의 시각을 갖게되는 것 같다. 출제자의 시각으로 지문을 바라보다 보면 처음보는 지문이라도 손쉽게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려가며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시간관리도 자연스레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제시문을 보는 시각이 길러졌다고 생각된 후부터는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유형의 문제에 대한 대비는 수능 기출문제를 활용하였고, 실전 감각에 대한 적응 훈련은 M/deet 와 행시 기출문제로 대비하였다. 물론 문제를 풀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시간배분훈련을 하였다.

어휘어법은 점심과 저녁 시간을 적극활용했다. 함께 리트를 공부하는 스터디원 들끼리 밥을 먹고난 후 소화시키면서 서로에게 문제를 내고 맞추는 방식으로 어휘

어법문제를 공부했다. 자칫 어렵기만하고 또한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은 어휘어법 일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니 재미도 있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료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였다.

## 7. 추리논증의 준비

추리논증의 기본서로는 2008년도에 출간되었던 통합 추리논증 책을 활용했다. 다른 책들도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어있고, 이해하기도 쉬웠던 책이 아니었나 한다. 다만 수험서이기에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같은 경우 학교에서 직접 논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교수님께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 수험서를 혼자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비로소 이해가 되면서 뭔가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 외에도 추리논증은 행시기출문제와 시중 문제집, 학원 모의고사 등을 풀면서 오답노트를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오답노트를 만들다보면 자신이 취약한 부분은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부분은 틀렸던 부분에서 또 틀린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오답노트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답노트는 시험 직전 1~2주 간 많은 도움을 주었다.

## 8. 스터디의 활용

LEET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터디 활용이 아닌가 한다. 나는 스터디를 통해 자칫 안이해지기 쉬운 나 자신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었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료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공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거나 힘이 들때면 모두가 자기 일처럼 다 함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도 좋았다. 내가 속한 스터디는 4월에 결성되어 11월에 나군 면접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었는데, 가끔씩 주변에서 얼마 못가고 금방 와해되는 스터디를 볼때면 스터디 하나 만큼은 정말 운 좋게도 잘 끝났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곤 한다. 물론 스터디를 결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터디 원인데, 나를 제외한 스터디원 개개인이 모두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 III. LEET 시험일 이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일까지

#### 1.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하기

LEET 시험을 친 후부터 약 1달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황에 빠지는 것 같다. 나역시도 약간의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리트 시험을 치른 후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앞서 말했던 노트를 활용할 때가 된 것이다.비록 자신의 리트 점수가 몇 점이 나올 것인지도 모르고, 정확히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 확실히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지원하고픈 학교를 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다를지라도 물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했기에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동안 틈틈이 작성했던 노트를 바탕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말들이나 교수님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 등을 남김없이 담으려고 했다. 이렇게 쓰다보니 자기소개서가 나도 모르게 나만의 자서전이 되어 있었다.

#### 2. 학교별 입시설명회 다니기

대부분의 학교는 리트 점수 발표일을 전후하여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학교별로 전형방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눈여겨 보았던 학교들의 입시설명회 일정을 체크해놓았다가 여기저기 다녔다. 물론 입시설명회에서 상담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학교별 안내책자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말해준다. 그러나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대부분 그 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입학관계자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보면 조금씩 내부적인 평가 정보에 대한 언질을 살짝 해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그 학교에서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가끔씩 희박한 확률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별 안내책자에 나온 정보가 아닌, 그런 알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일부러라도 입시설명회를 열심히 다녔다.그리고 시간이 허락할때면 굳이 내가 지원할 학교가 아니더라도 입시설명회를 가서 학교의 전형 정보를 얻었다. 어차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거쳐서 일정 기준의 입학전형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학교별로 전형 방법은 다를 지라도 어떤 것을 중시해서 보겠다는 등의 트렌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지원할 학교 정하기

입시설명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소 눈여겨 두었던 학교들 중에서 두 학교를 정해야 하는데, 원서를 단지 두 개만 넣을 수 있을 뿐이고, 학교마다 전형 요소가 천차만별이라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따라서 원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넣는가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같은 경우 가고 싶은 학교 한 군데는 미리 넣어두고, 나머지 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2~3군데 중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학교별 전형방법과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 그리고 사설학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그나마 합격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서로서로 분석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뢰도 높은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 4. 자기소개서 완성하기

대부분의 학교는 원서접수 마감일과 서류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이후에도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나같은 경우 먼저 미리 써놓은 내용이 긴 자기소개서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항목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자연스럽게 편집하고 내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변인들을 괴롭혔다. 가족들, 친인척들, 선후배들, 그리고 스터디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함께 고쳐나갔다. 주변 사람들의 침묵 횃수가 많아질수록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매끄러워지고 한결 깔끔해졌다.

## IV. 면접준비하기

사실상 면접 준비는 리트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많이 시작하고들 한다.그러나 나의 경우는 평소에도 틈틈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을 보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스크랩하고 정리해왔으므로 면접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면접 준비만큼 집단지성이 빛을 발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초반에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면접 기출문제 및 사회이슈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주요 출제예상 논점들을 정리한 후, 다시 각자가 맡은 부분을 찬반양론으로 정리해와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어느 정도 논점에 대한 공부가 끝나갈 때 즈음해서는 캠을 준비해와서 녹화를 하면서 모의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녹화한 모습을



보면서 자세나 시선 등을 서로서로 교정해주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모의면접은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하물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어찌면 생길지도 모르는 인격모독적 질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뜬금없는 돌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대비하며 서로가 그 방안을 생각하고 연습하였다.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만족스런 해답이 떠오를때까지 함께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실마리를 제시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답변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하여 세련된 답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시중에서 파는 면접책과는 확연히 다른 우리 스테디만의 면접자료집이 완성되었고, 실제 면접장에는 그것만을 들고 들어가서 대비하였다. 그 결과 나뿐 아닌 스테디원들 모두가 실전 면접에서는 아주 만족스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물론 문제 적중률도 상당히 높았음은 두말할 나위없었고, 나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한 학교 모두의 면접문제가 스테디에서 예상한 그대로 나왔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문제 관련 질문, 그리고 압박형 질문들 역시 대부분은 스테디원들끼리 예상하며 질문답변을 했던 것 그대로여서 연습하듯이 편하게 실전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

## V. 글을 마치며

어딜 내놔도 빠지는 스펙으로 감히 로스쿨을 합격한 몸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는 나와 비슷한 스펙에, 혹은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도전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다. 혹시라도 비루한 나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 중에 제갈량과 관련된 萬事具備 只欠東風이라는 고사가 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단지 동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 으면서 혹시라도 로스쿨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에게 있어 동풍이란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믿고 과감히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 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올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등에서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 지 않아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작년 로스 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었던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 글을 마칠까 한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 Lawrence Peter Berra.